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 4.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조 경 엽	선임연구위원
변 양 규	연 구 위 원
김 창 배	부 연 구 위 원

< 차 례 >

요 약	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소비 및 투자	4
3. 수출입 및 경상수지	5
4. 물가	6
5. 고용	7
6. 금리와 환율	8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11
1. 대내외 여건	13
(1) 대외여건	13
(2) 대내여건	17
2. 2011년 국내경제전망	19
제 III 장 이슈분석: 민간소비 위축 요인 점검	29
1. 경기회복 현황	31
2.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 현황 점검	33
3. 시사점	39
부 록	43

< 표 차례 >

<표 I-1> 경상수지	6
<표 I-2> 연령별 취업자 증감	8
<표 II-1> 주요국 성장률 전망	14
<표 II-2> 주요 선진국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5
<표 II-3> 유가 전망	16
<표 II-4>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17
<표 II-5> 분야별 재원배분	18
<표 II-6> 주요국 정책금리 현황	19
<표 II-7> 전망의 주요 전제	20
<표 II-8>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22
<표 II-9> 2011년 국내경제전망	28

< 그림 차례 >

<그림 I-1> GDP 증가율	3
<그림 I-2> 산업생산	3
<그림 I-3> 소매판매	4
<그림 I-4> 설비투자	4
<그림 I-5> 건설기성	4
<그림 I-6> 수출입 증가율	6
<그림 I-7> 소비자물가	7
<그림 I-8> 아파트가격(서울)	7
<그림 I-9>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8
<그림 I-10>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9
<그림 I-11> 원화환율	9
<그림 II-1> 최근 주요국 성장률	14
<그림 II-2> 최근 국제유가 추이	16
<그림 II-3> 2011년 예산	18
<그림 II-4> 가구 소득	21
<그림 II-5> 소비심리지수	21
<그림 II-6> 건설기업 BSI	23
<그림 II-7> 건설수주	23
<그림 II-8> GDP갭률	25
<그림 II-9> 유가 및 원화가치	25
<그림 II-10> 소비자물가 연 3.6% 시나리오	26
<그림 III-1> 가계 국내소비지출 증가율	31
<그림 III-2> 전국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추이	34
<그림 III-3> 가계부채 추이	35
<그림 III-4>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비교	36
<그림 III-5> 주택담보대출 추이	37
<그림 III-6> 소득분위별 실물자산 규모	38
<그림 III-7> 소득분위별 부채보유가구 중 고채무부담가구 비중	39

I. 최근 경제동향

■ 2010년 1/4분기 이후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거시정책 정상화,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세 둔화
 - 전년동기 대비(%): 7.5(2010. 2/4분기) → 4.4(3/4분기) → 4.7(4/4분기)
→ 4.2(2011. 1/4분기)
- 1~2월 중 산업생산, 높은 증가율 유지하지만 증가속도는 둔화
 - 전년동기 대비(%): 10.9(2010. 3/4분기) → 11.7(4/4분기) → 11.4(2011. 1~2월)

■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하락세

- 소매판매액(전년동기 대비, %): 7.5(2010. 3/4분기) → 5.1(4/4분기)
→ 5.0(2011. 1~2월)
- 설비투자(전년동기 대비, %): 29.3(2010. 3/4분기) → 13.6(4/4분기)
→ 11.0(2011. 1~2월)
- 건설투자(전년동기 대비, %): -6.8(2010. 3/4분기) → -4.3(4/4분기)
→ -15.0(2011. 1~2월)

■ 수출과 수입 모두 전 분기에 비해 확대

- 수출(전년동기 대비, %): 22.7(2010. 3/4분기) → 23.8(4/4분기)
→ 29.9(2011. 1/4분기)
- 수입(전년동기 대비, %): 24.6(2010. 3/4분기) → 24.6(4/4분기)
→ 25.6(2011. 1/4분기)

■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추세

-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
 - 상품수지(억 달러): 123.4(2010. 4/4분기) → 31.4(2011. 1~2월)
 - 서비스수지(억 달러): -22.0(2010. 4/4분기) → -22.1(2011. 1~2월)
 - 경상수지(억 달러): 91.6(2010. 4/4분기) → 13.3(2011. 1~2월)

■ 소비자물가, 1월 이후 3개월 연속 4%대 상승률

- 두 자릿수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의 빠른 오름세가 지속
 - CPI(전년동월 대비, %): 4.1(1월) → 4.5(2월) → 4.7(3월)
 - 농축수산물(전년동월 대비, %): 17.5(1월) → 17.7(2월) → 14.9(3월)

■ 고용회복세 지속

- 1/4분기 중 취업자 수 전년동기 대비 약 42만 명 증가
 - 취업자(만 명): 43.3(2010. 2/4분기) → 36.9(3/4분기) → 35.8(4/4분기)
→ 42.2(2011. 1/4)
 - 하지만 4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
 - * 15~29세(만 명): -5.8(2010. 2/4분기) → -4.4(3/4분기) → -5.7(4/4분기)
→ -5.5(2011. 1/4분기)
 - * 30~39세(만 명): -1.3(2010. 2/4분기) → 2.1(3/4분기) → 1.7(4/4분기)
→ -3.3(2011. 1/4분기)

■ 시장금리, 3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풍부한 유동성,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리상승압력 약화
 - 회사채(3년, AA-, %): -0.02%p(2011. 3. 10~2011. 4. 26)

■ 원/달러 환율 하락추세 지속

- 글로벌 달러 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입, 무역흑자 등으로 달러 공급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

* 원/달러(평균): 1,120(2011. 1월) → 1,118(2월) → 1,122(3월) → 1,085.5(4/27)

II.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 세계경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확대

- (미국) 소비, 생산,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모멘텀 지속
 - 하지만 2차 양적완화(QE2)의 종료 여부, 신용등급전망 하향에 따른 긴축 가능성 등 회복세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일본) 지진/원전사태 복구 지연 등으로 성장률 하락 전망
 - IMF는 올 GDP성장률을 1.6%에서 1.4%로 하향조정
- (유로지역)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럽의 재정위기 재부각되면서 재정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활력 저하 예상
 - 재정위기, 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 (중국) 물가상승압력에 따른 긴축 강화가 향후 경기에 주요 변수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4%)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의 긴축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 재정 긴축, 물가압력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전망
 - IMF는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5.0%)보다 낮은 4.4%로 전망

■ 국제유가, 연평균 105달러/배럴(두바이유 기준) 전망(2010년 약 78달러)

- 신흥국 수요증가세, 글로벌 유동성 증가, 달러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 또한 MENA 정세불안 및 일본 지진 등으로 고유가 지속 가능성
 - 리비아의 원유수출은 내전에 따른 시설 파괴와 국제제재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원전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

■ 달러 약세 기조 완화 전망

- 일본이나 EU에 비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이들 통화에 대한 약세 현상이 완화될 전망
 - 일본경제는 대지진이라는 추가적인 성장둔화 요인으로 인해 엔화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
 - 유로지역의 경우도 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재정긴축의 강화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최근의 유로화 강세가 완화될 전망

■ 대내여건, 2011년 확장적 재정 기조 약화

- 2011년 예산안,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게 편성
 - 총수입은 314조4천억 원, 총지출은 309조1천억 원
 - 총지출 증가율은 5.5%로 2005~2009년 평균 증가율 7.9%에 비해 하락
 - SOC에 대한 예산은 감소(-2.7%)

■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전망

- 5월 그리고 하반기 한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50%로 예상
 - 소비자물가가 연초 이후 4%대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고 향후에도 물가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금리인상 기조는 불가피
 - 하지만 중동 민주화,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 경기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신중한 금리인상이 예상

- 지난해 7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 3월 모두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주요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유사

■ 부동산 경기 약세 지속

-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많아 약세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 기조의 지속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 중기적으로는 주택의 주수요층인 35~54세 인구 감소,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부동산 경기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공급측면에서는 건설사 구조조정, 대규모 PF사업의 지연 등으로 위축

2. 2011년 국내경제전망

■ 2011년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전망의 주요 전제

(단위: %, 달러/bbl)

외생변수	2010년	2011년
GDPCH(중국 성장률)	10.3	9.6
GDPJP(일본 성장률)	3.9	1.4
GDPUS(미국 성장률)	2.8	2.8
OIL\$DUBAI(두바이)	78.1	105.0
RP(기준금리, 기말)	2.50	3.5

■ 경제성장률: 6.2%(2010년) → 3.9%(2011년)

- 연초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세, 물가상승 등의 성장률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2011년 성장률을 당초(4.1%)에 비해 0.2%p 하향조정
 - 하향요인
 - * 국제유가, 약 24%(85\$ → 105\$) 상향조정 → 성장률 약 0.8%p 하락
 - * 콜금리, 0.5%p(3.00% → 3.50%) 상향조정 → 성장률 약 0.07%p 하락

• 상향요인

- * 미국 성장률 상향조정(2.1% → 2.8%)에 따른 성장률 약 0.6%p 상승
- *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이 예상되지만 부품공급 차질 등을 감안할 때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소폭

■ 점진적인 민간소비: 4.1%(2010년) → 3.2%(2011년)

- 경기부양 효과 소멸, 금리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 더구나 올 들어 물가불안 등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치 이하로 하락
- 이에 따라 2011년 민간소비는 당초 예상(3.8%)보다 0.6%p 축소될 전망

■ 점진적인 설비투자: 25.0%(2010년) → 8.3%(2011년)

- 2011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2010년에 비해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투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전년(25.0%)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
- 하지만 2011년 들어 설비투자압력, 평균가동률 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전망(7.6%)에 비해 0.7%p 상향 조정

■ 점진적인 건설투자: -1.4%(2010년) → -3.1%(2011년)

- 2011년에도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될 전망
 -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민간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
 - 2009년 조기발주 및 2011년 SOC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공 공사 발주 물량은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 불가피
 - 건설수주 8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
 - 또한 건설사 구조조정, PF사업 지연 등으로 건설업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건설투자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

■ 경상수지: 282억 달러 흑자(2010년) → 128억 달러 흑자(2011년)

- 2011년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 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추세 등으로 흑자폭이 2010년의 절반 수준인 128억 달러로 축소
 - 2010년 약 29%의 증가세를 보인 수출은 선진국의 재정긴축 및 가계부채조정에 따른 수요 감소, 중국의 경기 조정, 원/달러 환율 하락,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율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
 - 수입도 국내 성장률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환율 하락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에 비해 높은 증가율이 예상
 - 원/달러 환율의 하향 조정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당초 전망치(145억 달러)에 비해 약 20억 달러 축소

■ 소비자물가: 2.9%(2010년) → 4.2%(2011년)

- 2011년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2010년에 비해 큰 폭 상승한 4.2%
 - 당초 전망치(3.2%)에 비해 1%p 상향 조정된 것으로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추가적인 물가상승요인을 반영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4.7%(2010년) → 4.9%(2011년)

- 2011년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 압력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유럽 재정문제, 중공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등 3대 리스크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대출수요 위축에 따른 은행권의 채권수요 증대로 시중금리의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원/달러 환율: 1,156(2010년) → 1,079(2011년)

- 달러공급 우위 지속,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주요국의 불안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약달러 현상이 점차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전망

- (일본) 대지진으로 성장률의 추가적 하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양적완화 및 금리 동결 등을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 남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으로 주요국들의 재정긴축이 본격화되면서 회복세 둔화 전망

2011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10년	2011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6.2	4.2	3.3	3.9	4.3	3.8	4.1	3.9
(SA, 전기 대비, %)		1.4	0.8	1.2	0.9	2.0	2.1	
민간소비	4.1	3.0	3.3	3.0	3.4	3.1	3.2	3.2
건설투자	-1.4	-11.9	-3.2	-1.2	1.6	-7.0	0.3	-3.1
설비투자	25.0	12.0	7.8	5.1	8.7	9.8	6.9	8.3
수출(재화+서비스)	14.5	16.8	9.9	8.2	8.0	13.1	8.1	10.5
수입(재화+서비스)	16.9	10.8	8.2	9.1	8.9	9.5	9.0	9.2
소비자물가	2.9	4.5	4.6	3.9	3.7	4.5	3.8	4.2
생산자물가	3.9	6.7	8.0	7.8	6.8	7.4	7.3	7.3
경상수지(억 달러)	282.1	18.5	32.7	37.4	39.2	51.2	76.6	127.8
상품수지(억 달러)	419.0	55.8	81.7	81.0	78.8	137.5	159.9	297.3
수출(억 달러, BOP 기준)	4,642.9	1,262.9	1,361.6	1,302.0	1,391.6	2,624.5	2,693.6	5,318.2
증가율 %	29.6	24.6	15.8	10.1	9.5	19.9	9.8	14.5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23.8	1,207.1	1,279.9	212.0	1,312.8	2,487.1	2,533.8	5,020.8
증가율 %	31.9	25.0	21.5	15.5	14.4	23.2	14.9	18.9
서비스 및 기타 수지(억 달러)	-136.9	-37.3	-49.0	-43.6	-39.6	-86.3	-83.2	-169.5
환율(원/달러, 평균)	1,156.5	1,120.4	1,080.0	1,060.0	1,055.0	1,100.2	1,057.5	1,078.9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4.6	4.8	5.1	5.3	4.7	5.2	4.9
실업률(%)	3.8	4.2	3.7	3.6	3.5	4.0	3.6	3.8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Ⅲ. 이슈분석: 민간소비 위축 요인 점검

-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

■ 물가불안과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및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를 방지해야 함.

- 물가불안 및 금리인상 등 민간소비 위축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

- 농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는 2010년 말부터 급등하는 상황
- 개인 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면적인 물가상승이 현실화되어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금리인상 또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가계부채문제 완화 및 전세시장 안정화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을 방지해야 함.

■ 주택 수급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시켜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공급확대정책이 절실함.

-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시장에는 가격통제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전세 공급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안정의 최선책이 될 것임.

- 분양가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을 통해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함.

- 최근 주택시장은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약화됨.

- 전월세상한제는 시행시기를 앞두고 전월세의 급등을 초래하고 주택매입 대기수요

계층의 전세 수요를 더 부추김으로써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도입해서는 안 됨.

- DTI는 행정규제로 장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총량을 규제하고 개별 금융회사는 자체 리스크의 부문별 조합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방향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통해 가계의 부채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부채보유가구의 총자산 대비 부채규모로 본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의 부채조정과 부채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함.
- DTI 규제의 부활은 부채보유가구의 부채상환능력 및 부채상환 가능성을 저하시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를 현실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해야 함.
-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잠재적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비은행예금기관과 여신기관의 최근 급격한 가계대출 확대를 주목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 일부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부채조정정책과 파산정책을 정비해야 함.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소비 및 투자
3. 수출입 및 경상수지
4. 물가
5. 고용
6. 금리와 환율

1. 경제성장

■ 2010년 1/4분기 이후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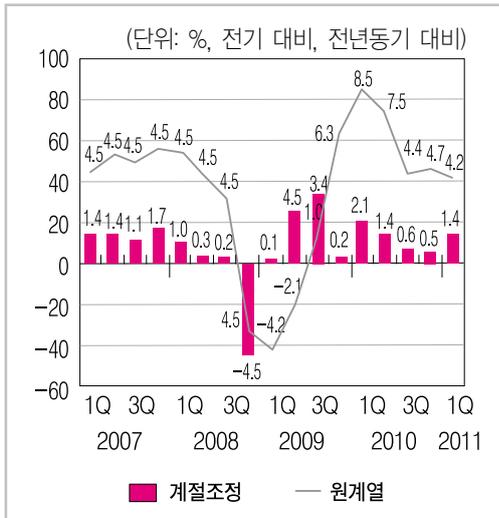
– 거시정책 정상화,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세 둔화

- 전년동기 대비(%): 7.5(2010. 2/4분기) → 4.4(3/4분기) → 4.7(4/4분기)
→ 4.2(2011. 1/4분기)
- 전기 대비(%): 1.4(2010. 2/4분기) → 0.6(3/4분기) → 0.5(4/4분기)
→ 1.4(2011.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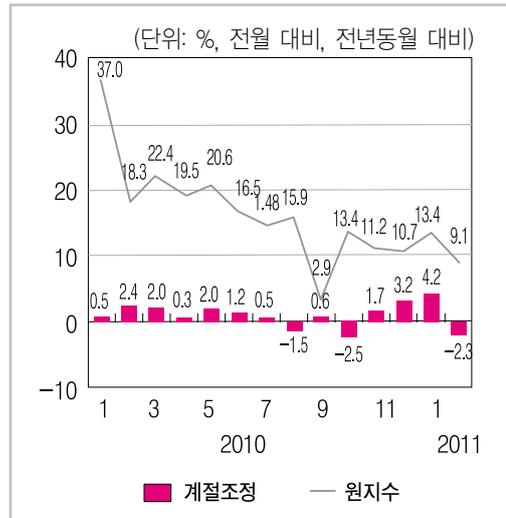
– 1~2월 중 산업생산,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월 대비(%): 1.7(2010. 11월) → 3.2(12월) → 4.2(2011. 1월) → -2.3(2월)
- 전년동기 대비(%): 10.9(2010. 3/4분기) → 11.7(4/4분기) → 11.4(2011. 1~2월)

<그림 1 - 1> GDP 증가율



<그림 1 - 2> 산업생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 소비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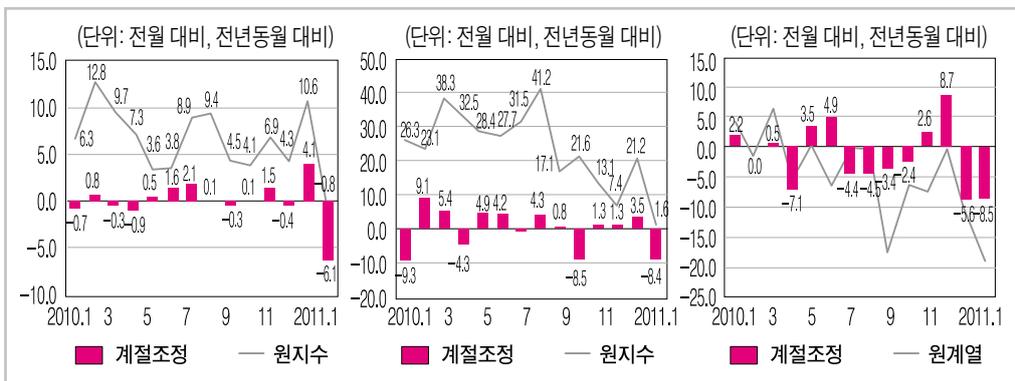
■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하락세

- 소매판매액, 1월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추세적 둔화세
 - 전년동기 대비(%): 7.5(2010. 3/4분기) → 5.1(4/4분기) → 5.0(2011. 1~2월)
 - 전월 대비(%): 1.5(2010. 11월) → -0.4(12월) → 4.1(2011. 1월) → -6.1(2월)
- 설비투자,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소폭 반등했으나 2월 중 급락
 - 전년동기 대비(%): 29.3(2010. 3/4분기) → 13.6(4/4분기) → 11.0(2011. 1~2월)
 - 전월 대비(%): 1.3(2010. 11월) → 1.3(12월) → 3.5(2011. 1월) → -8.4(2월)
- 건설투자, 지난해 11~12월 중 일시적 반등 이후 1~2월 중 큰 폭 하락
 - 전년동기 대비(%): -6.8(2010. 3/4분기) → -4.3(4/4분기) → -15.0(2011. 1~2월)
 - 전월 대비(%): 2.6(2010. 11월) → 8.7(12월) → -8.8(2011. 1월) → -8.5(2월)

<그림 1 - 3> 소매판매

<그림 1 - 4> 설비투자

<그림 1 - 5> 건설기성



자료: 통계청

3. 수출입 및 경상수지

■ 수출과 수입 모두 전 분기에 비해 확대

- 수출, 1/4분기 중 29.9% 증가하며 전 분기(23.8%)보다 확대

- 수출(전년동기 대비, %): 22.7(2010. 3/4분기) → 23.8(4/4분기)
→ 29.9(2011. 1/4분기)
- 일평균(억 달러): 16.8(2010. 3/4분기) → 17.9(4/4분기) → 20.0(2011. 1/4분기)

- 수입도 1/4분기 중 25.6%의 높은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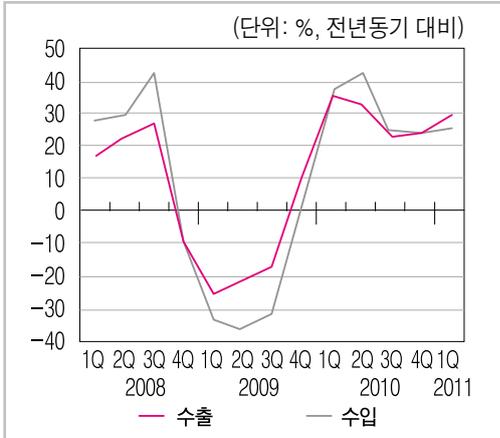
- 수입(전년동기 대비, %): 24.6(2010. 3/4분기) → 24.6(4/4분기)
→ 25.6(2011. 1/4분기)
- 일평균(억 달러): 15.2(2010. 3/4분기) → 16.0(4/4분기) → 18.7(2011. 1/4분기)

■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추세

-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축소

- 상품수지(억 달러): 123.4(2010. 4/4분기) → 31.4(2011. 1~2월)
- 서비스수지(억 달러): -22.0(2010. 4/4분기) → -22.1(2011. 1~2월)
- 경상수지(억 달러): 91.6(2010. 4/4분기) → 13.3(2011. 1~2월)

〈그림 1 - 6〉 수출입 증감율



〈표 1 - 1〉 경상수지

구분	2010년				2011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2월
경상수지	2.6	88.6	99.3	91.6	13.3
상품	47.9	122.4	125.4	123.4	31.4
서비스	-42.0	-18.7	-29.5	-22.0	-22.1
본원소득	5.5	-10.1	13.0	-0.7	12.5
이전소득	-8.7	-5.0	-9.5	-9.1	-8.4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4. 물가

■ 소비자물가, 1월 이후 3개월 연속 4%대 상승률

- 두 자릿수의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의 빠른 오름세 지속

- CPI(전년동월 대비, %): 4.1(1월) → 4.5(2월) → 4.7(3월)
- 농축수산물(전년동월 대비, %): 17.5(1월) → 17.7(2월) → 14.9(3월)

- 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 대비)도 3%대의 상승세

- 근원인플레이션(전년동월 대비, %): 2.6(1월) → 3.1(2월) → 3.3(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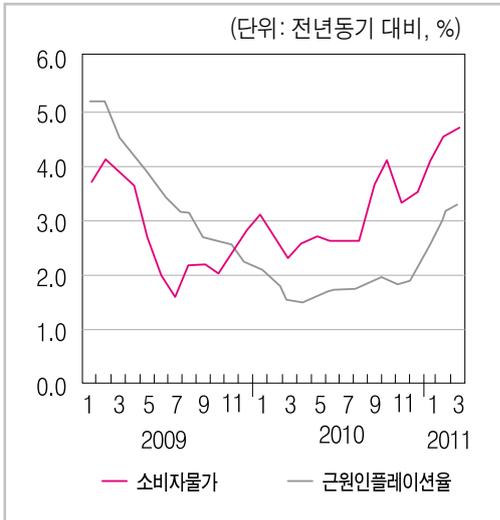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매매가격은 낮은 증가세에 그치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수급불안으로 높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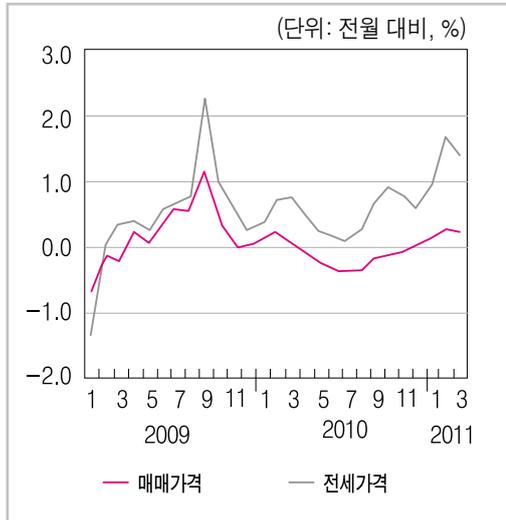
- 매매가(전월 대비, %): 0.0(2010. 11월) → 0.0(12월) → 0.1(2011. 1월) → 0.3(2월) → 0.2(3월)

- 전세가(전월 대비, %): 0.6(2010. 12월) → 1.0(2011. 1월) → 1.7(2월) → 1.4(3월)

<그림 I - 7> 소비자물가



<그림 I - 8> 아파트가격(서울)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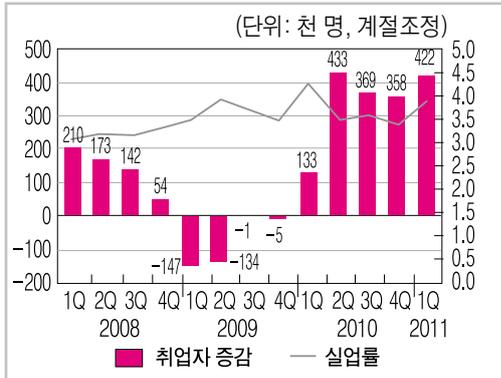
5. 고용

■ 고용회복세 유지

- 1/4분기 중 취업자 수 전년동기 대비 약 42만 명 증가
 - 전체 취업자(만 명): 43.3(2010. 2/4분기) → 36.9(3/4분기) → 35.8(4/4분기) → 42.2(2011. 1/4분기)
 - 하지만 4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 지속
 - * 15~29세(만 명): -5.8(2010. 2/4분기) → -4.4(3/4분기) → -5.7(4/4분기) → -5.5(2011. 1/4분기)
 - * 30~39세(만 명): -1.3(2010. 2/4분기) → 2.1(3/4분기) → 1.7(4/4분기) → -3.3(2011. 1/4분기)
- 실업률도 1/4분기 중 4.2%로 전년 1/4분기(4.7%)에 비해 개선

- 실업률(%): 4.7(2010. 1/4분기) → 3.5(2/4분기) → 3.5(3/4분기)
→ 3.3(4/4분기) → 4.3(2011. 1/4분기)

<그림 1 - 9>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표 1 - 2> 연령별 취업자 증감

구 분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2010. 1/4분기	-1.2	-4.2	-2.1	25.1	-4.4
2/4분기	-5.8	-1.3	4.8	34.2	11.4
3/4분기	-4.4	2.1	4.0	29.5	5.7
4/4분기	-5.7	1.7	5.0	28.7	6.0
2011. 1~2월	-5.5	-3.3	8.5	27.8	12.4

6. 금리와 환율

■ 시장금리, 3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풍부한 유동성,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리상승압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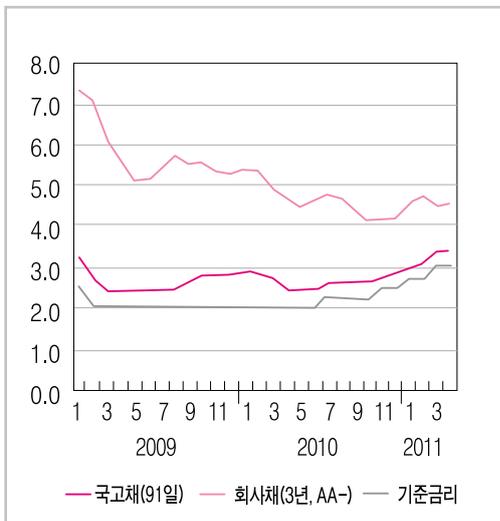
• 기준금리 인상과 회사채 수익률(3년, AA-) 변화 추이

- * 기준금리 0.25%p 인상(2010. 7. 9) → 회사채 -0.59%p(2010. 7. 9~2010. 11. 15)
- * 기준금리 0.25%p 인상(2010. 11. 16) → 회사채 +0.09%p(2010. 11. 16~2011. 1. 12)
- * 기준금리 0.25%p 인상(2011. 1. 13) → 회사채 +0.28%p(2011. 1. 13~2011. 3. 9)
- * 기준금리 0.25%p 인상(2011. 3. 10) → 회사채 -0.02%p(2011. 3. 10~2011. 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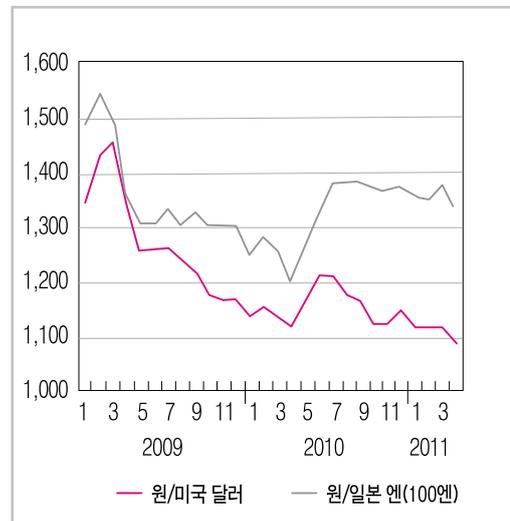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하락추세 지속

- 글로벌 달러 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입, 무역흑자 등으로 달러 공급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
 - 3월 중반까지는 중동지역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사태,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했으나 3월 후반 이후 이들 리스크가 완화되며 환율이 하락 추세로 반전
 - * 원/달러(평균): 1,120(2011. 1월) → 1,118(2월) → 1,122(3월) → 1,085.5(4/27)

<그림 I - 10>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그림 I - 11> 원화환율



자료: 한국은행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2011년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확대

- (미국) 연초 이후 회복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음.
 - 올 들어 소비, 생산,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소매판매(전기 대비, %): 0.8(2010. 11월) → 0.6(12월) → 0.7(2011. 1월) → 1.0(2월)
 - * 제조업생산(전기 대비, %): 0.2(2010. 11월) → 1.1(12월) → 0.9(2011. 1월) → 0.5(2월)
 - * 실업률(%): 9.8(2010. 11월) → 9.4(12월) → 9.0(2011. 1월) → 8.9(2월) → 8.8(3월)
 - 하지만 2차 양적완화(QE2)의 종료 여부, 신용등급전망 하향에 따른 긴축 가능성 등 회복세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 또한 휘발유가격 추가 상승 시 소비회복세 약화 예상
- (일본) 지진/원전사태 복구 지연 등으로 성장률 하락 전망
 - IMF는 올 GDP성장률을 1.6%에서 1.4%로 하향조정
 - 대지진 및 원전사고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
 - 원전사고의 수습 속도, 방사능 공포, 추가 지진 발생 및 전력공급의 정상화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하여 예상보다 악영향이 커질 가능성
- (유로지역)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재부각
 - 재정긴축 강화로 유럽국가들의 경기활력 저하 우려
 - * PIIGS국가들 낮은 산업경쟁력으로 수출회복세가 저조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강화로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 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 (중국) 물가상승압력에 따른 긴축강화가 향후 경기에 주요 변수
 -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확대
 - *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 10.3(2010. 2/4분기) → 9.6(3/4분기) → 9.8(4/4분기)

→ 9.7(2011. 1/4분기)

* CPI(전년동기 대비, %): 4.6(2010. 12월) → 4.9(2011. 1월) → 4.9(2월) → 5.4(3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4%)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의 긴축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중국은 2010년 기준율과 기준금리를 각각 6회, 2회 인상했으며 올 들어서도 각각 4회, 2회 인상

• 하지만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 약 9%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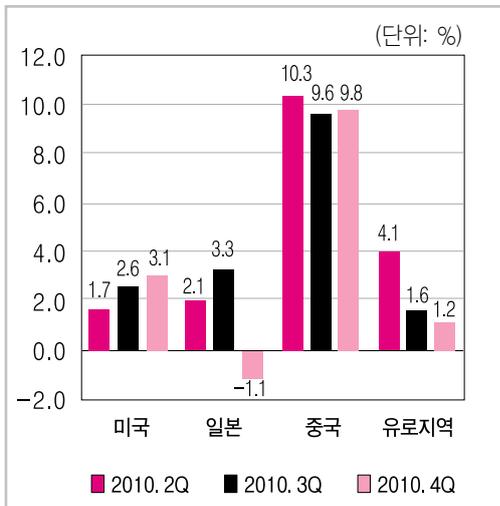
* 긴축은 경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 범주의 조치

* 경기과열의 적절한 통제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및 시장에 긍정적 효과

- (세계경제) 재정 긴축, 물가압력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전망

• IMF는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5.0%)보다 낮은 4.4%로 전망

<그림 II-1> 최근 주요국 성장률



주: 전기 대비 연율,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표 II-1> 주요국 성장률 전망

구분	IMF			World Bank
	2009	2010	2011	2011
세계	-0.5	5.0	4.4	4.4
선진국	-3.4	3.0	2.4	2.7
미국	-2.6	2.8	2.8	2.9
EU	-4.1	1.7	1.6	2.0
일본	-6.3	3.9	1.4	2.0
신흥국 및 개도국	2.7	7.3	6.5	6.1
중국	9.2	10.3	9.6	8.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4.
World Bank 2011. 1.

- 선진국: 재정건전성 강화, 물가압력 확대에 따른 소비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세 둔화
-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경우, 선진국 성장세 둔화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교역감소를 통한 성장세 둔화가 예상

〈표 II -2〉 주요 선진국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	2011(E)
미국	재정수지	-6.5	-12.7	-10.6	-10.8
	정부부채	71.2	84.6	91.6	99.5
영국	재정수지	-4.9	-10.3	-10.4	-8.6
	정부부채	52.0	68.3	77.2	83.0
일본	재정수지	-4.2	-10.3	-9.5	-10.0
	정부부채	195.0	216.3	220.3	229.1
독일	재정수지	0.1	-3.0	-3.3	-2.3
	정부부채	66.3	73.5	80.0	80.1
프랑스	재정수지	-3.3	-7.5	-7.0	-5.8
	정부부채	67.7	78.3	81.8	85.0
이탈리아	재정수지	-2.7	-5.3	-4.5	-4.3
	정부부채	106.3	116.1	119.0	120.3
스페인	재정수지	-4.2	-11.1	-9.2	-6.2
	정부부채	39.8	53.2	60.1	63.9
포르투갈	재정수지	-2.9	-9.3	-7.3	-5.6
	정부부채	65.3	76.1	83.3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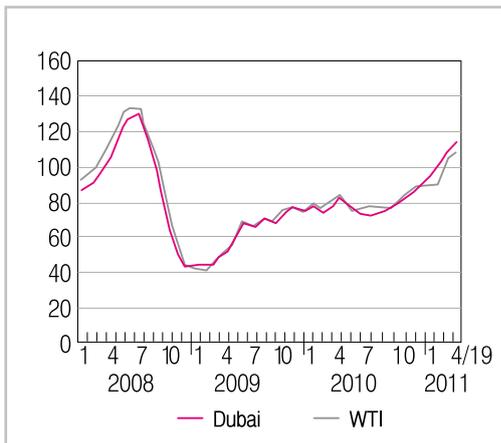
자료: IMF, Fiscal Monitor, April 2011.

■ 국제유가, 연평균 105달러/배럴(두바이유 기준) 전망(2010년 약 78달러)

- 신흥국 수요증가세, 글로벌 유동성 증가, 달러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중국 등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견조한 원유수요를 견인

- 글로벌 유동성 확대, 달러 약세 등에 따른 원유 투자 증가는 유가 상승요인
- 또한 MENA 정세불안 및 일본 지진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가능성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리비아의 원유수출은 내전으로 인한 시설 파괴와 국제제재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성장둔화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효과보다는 원전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가 예상됨.
- 주요 전망기관들도 2011년 유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한국석유공사의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에서는 올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전망치를 배럴당 100달러로 상향 조정

<그림 II-2> 최근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표 II-3> 유가 전망

구분	유종	2009	2010	2011	
CGES(3/21)	Brent	기준유가	61.8	79.9	110.4
		고유가	61.8	79.9	118.5
		저유가	61.8	79.9	102.4
CERA(4/1)	Dubai	기준유가	61.7	78.1	107.4
EIA(4/12)	WTI	기준유가	61.7	79.4	106.4
PIRA(3/29)	WTI	기준유가	61.7	79.4	107.4

주: CERA - 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CGES - 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EIA - 美 에너지정보청
 PIRA - 석유산업연구소

■ 달러 약세 기조 완화 전망

- 일본이나 EU에 비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됨에 따라 이들 통화화에 대한 달러의 약세 현상이 완화될 전망
 - 일본경제는 대지진이라는 추가적인 성장둔화 요인으로 인해 엔화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

- 유로지역의 경우도 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재정긴축의 강화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최근의 유로화 강세가 완화될 전망
- 투자은행들, 향후 1년간 엔 및 유로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강세를 전망
 - 엔화는 향후 12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
 - 유로화의 경우는 완만한 강세를 예상

〈표 II -4〉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구 분	엔/달러				달러/유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평균	82.71	83.62	85.36	86.08	1.3886	1.396	1.4055	1.4031
최고	90.00	88.00	92.00	93.00	1.4800	1.4700	1.4800	1.5000
최저	75.00	78.00	78.00	78.00	1.3000	1.2600	1.3000	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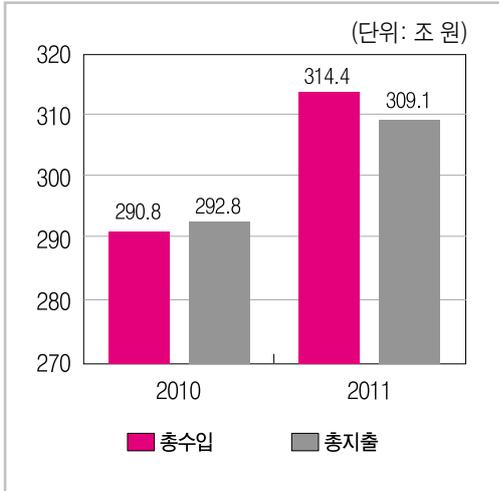
주: 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4/9~4/18
 자료: 국제금융센터

(2) 대내여건

■ 2011년 확장적 재정 기조 약화

- 2011년 예산안,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게 편성
 - 총수입은 314조4천억 원, 총지출은 309조1천억 원으로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
 - * 관리대상 재정적자는 2010년 30조1천억 원에서 2011년 25.0조 원으로 감소
 - 총지출 증가율은 5.5%로 2005~2009년 평균(7.9%)에 비해 낮은 증가율
 - 또한 일반공공행정(7.5%), 교육(7.8%), 보건복지노동(6.3%) 등에 대한 증가율이 높게 편성된 반면 SOC에 대한 투자는 감소(-2.7%)

<그림 II -3> 2011년 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표 II -5> 분야별 자원배분

구분	2010년	2011년	증가율
R&D	13.7	14.9	8.7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1	15.2	0.3
SOC	25.1	24.4	-2.7
농림수산식품	17.3	17.6	2.2
보건, 복지, 노동	81.2	86.4	6.3
교육	38.3	41.2	7.8
문화, 체육, 관광	3.9	4.2	7.8
환경	5.4	5.5	6.2
국방	29.6	31.4	6.2
외교, 통일	3.3	3.7	9.0
공공질서, 안전	12.9	13.7	5.6
일반공공행정	48.7	52.4	7.5

■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전망

- 지난해 7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 3월 모두 네 차례의 금리인상
 - 현재 기준금리는 3.00%로 지난해 7월 2.00%에 비해 1.00%p 상승
 - 브라질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주요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유사한 인상 속도

- 5월 그리고 하반기 한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50%로 예상
 - 소비자물가가 연초 이후 4%대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고 향후에도 물가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금리인상 기조는 불가피
 - 하지만 중동 민주화,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 경기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신중한 금리인상이 예상
 - *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 여부가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관건이 될 전망.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흐름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결정이 예상됨.

〈표 II -6〉 주요국 정책금리 현황

구분	2009년 말	2010년 말	2011. 4. 8.	2010년 말 대비	2009년 말 대비
미국	0~0.25	0~0.25	0~0.25	0.00	0.00
캐나다	0.25	1.00	1.00	+0.75	+0.75
브라질	8.75	10.75	11.75	+1.00	+3.00
유로지역	1.00	1.00	1.25	+0.25	+0.25
영국	0.50	0.50	0.50	0.00	0.00
한국	2.00	2.50	3.00	+0.50	+1.00
일본	0.10	0.05	0.05	0.00	-0.05
중국	5.31	5.81	6.31	0.50	+1.00
대만	1.25	1.625	1.75	0.125	+0.50
인도	4.75	6.25	6.75	0.50	+2.00
호주	3.75	4.75	4.75	0.00	+1.00

자료: 한국은행

■ 부동산 경기 약세 지속

-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많아 약세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 기조의 지속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 중기적으로는 주택의 주수요층인 35~54세 인구 감소,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부동산 경기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공급측면에서는 건설사 구조조정, 대규모 PF사업의 지연 등으로 위축

2. 2011년 국내경제전망

■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 2011년 주요국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전제
 - 미국 2.8%, 일본 1.4% 그리고 중국은 9.6%로 가정

- 국제유가는 주요 예측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하여 배럴당 105달러로 가정
 - 전년 평균(78.1달러/배럴) 대비 약 35% 상승
- 기준금리, 대내외 불안요인을 감안해 완만한 인상이 예상
 - 2010년 말(2.50%)보다 1.00%p 높은 3.50%로 전제

〈표 II-7〉 전망의 주요 전제

(단위: %, \$/bbl)

외생변수	단위	2010년	2011년
GDPCH(중국 성장률)	%	10.3	9.6
GDPJP(일본 성장률)	%	3.9	1.4
GDPUS(미국 성장률)	%	2.8	2.8
OIL\$DUBAI(두바이)	\$/bbl	78.1	105.0
RP(기준금리, 기말)	%	2.50	3.50

■ 경제성장률: 6.2%(2010년) → 3.9%(2011년)

- 당초 2011년 성장률은 다음과 같은 예상을 바탕으로 연간 4%대 초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재정 및 통화 정책 정상화 시행에 따른 내수 회복세 둔화
 -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 강화, 중국 등 신흥국들의 인플레이 방어를 위한 긴축, 환율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 201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소멸
- 하지만 연초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세, 물가상승 등의 성장률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2011년 성장률을 하향조정
 - 하향요인
 - * 국제유가, 약 24%(85\$ → 105\$) 상향조정 → 성장률 약 0.8%p 하락
 - * 콜금리, 0.5%p(3.00% → 3.50%) 상향조정 → 성장률 약 0.07%p 하락
 - 상향요인
 - * 미국 성장률 상향조정(2.1% → 2.8%)에 따른 성장률 약 0.6%p 상승

*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이 예상되지만 부품공급 등의 차질 등을 감안할 때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소폭

■ 민간소비: 4.1%(2010년) → 3.2%(2011년)

- 경기부양 효과 소멸, 금리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 금리인상, 집값 하락세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
- 가구당 소득증가세도 하반기 이후 하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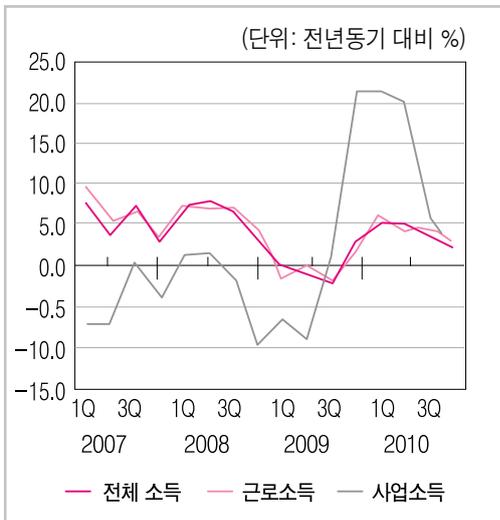
* 소득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5.4(2010. 1/4분기) → 5.3(2/4분기)
→ 3.9(3/4분기) → 2.1(4/4분기)

- 더구나 올 들어 물가불안 등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치 이하로 하락

- 농산물가격 상승, 구제역 파동,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한 물가압력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

- 이에 따라 2011년 민간소비는 당초예상(3.8%)보다 0.6%p 축소될 전망

<그림 II-4> 가구 소득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5> 소비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25.0%(2010년) → 8.3%(2011년)

- 2011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2010년에 비해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투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전년(25.0%)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
 - 2010년 중 설비투자 급증세로 투자 일단락
 - 기업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 *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
 - * 중소기업은 금리상승, 구조조정, 대출회수 등으로 투자확대에 어려움
- 하지만 2011년 들어 설비투자압력, 평균가동률 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전망(7.6%)에 비해 0.7%p 상향 조정
 - 설비투자압력(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율 차)의 하락세가 반전
 - * 설비투자압력(%p): 12.1(2010. 2/4분기) → 3.4(3/4분기) → 4.6(4/4분기) → 4.8(2011. 1~2월)
 - 제조업 평균가동률 재상승
 - * 평균가동률(%): 82.3(2010. 2/4분기) → 81.2(3/4분기) → 80.8(4/4분기) → 83.6(2011. 1~2월)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큰 폭의 상승세
 - * 기계수주(전년동기 대비, %): -0.2(2010. 3/4분기) → 11.3(4/4분기) → 23.1(2011. 1~2월)

〈표 II-8〉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 가동률 추이

(단위: %p,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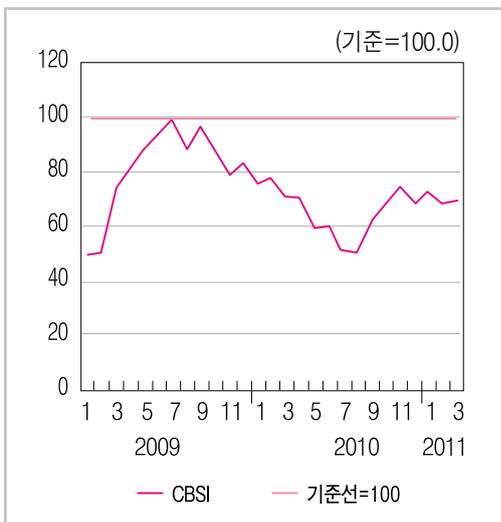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설비투자조정압력(a-b)	1.4	12.5	20.4	12.1	3.4	4.6	4.8
a. 제조업생산증가율	4.9	17.5	26.6	19.3	11.2	12.0	11.7
b.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3.5	5.0	6.2	7.2	7.8	7.4	6.9
제조업 평균 가동률(%)	77.8	78.4	80.4	82.3	81.2	80.8	83.6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 -1.4%(2010년) → -3.1%(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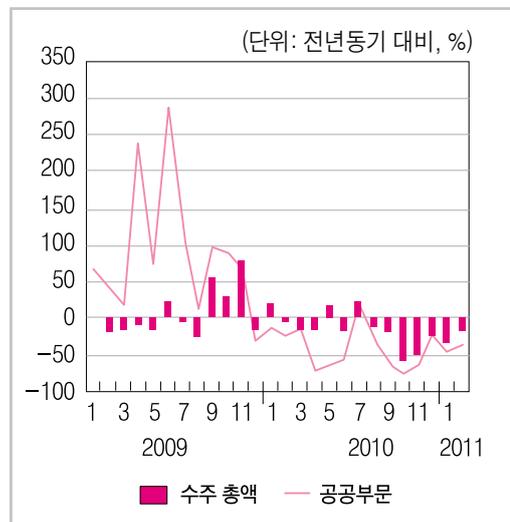
- 2011년에도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될 전망
 -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민간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
 -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따른 수요 감소, 주택 수요 목적의 인식 전환(소유에서 사용), 부동산 수익률 저하 등의 요인 등
 - 2009년 조기발주 및 2011년 SOC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공 공사 발주 물량은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 불가피
 - * SOC예산: 2010년 25조1천억 원 → 2011년 24조4천억 원(전년 대비 2.7% 감소)
 - 건설수주 8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
- 또한 건설사 구조조정, PF사업 지연 등으로 건설업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건설투자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12월 이후 등락하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
 - * 지난해 8·29대책도 기대만큼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고 정부의 3·22대책도 주택거래 침체를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건설업체들은 판단

<그림 II -6> 건설기업 BSI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그림 II -7> 건설수주



자료: 국토해양부

■ 경상수지: 282억 달러 흑자(2010년) → 128억 달러 흑자(2011년)

- 2011년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 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추세 등으로 흑자폭이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2010년 약 29%의 증가세를 보인 수출은 선진국의 재정긴축 및 가계부채조정에 따른 수요 감소, 중국의 경기 조정, 원/달러 환율 하락,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율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
 - 수입도 국내 성장률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환율 하락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에 비해 높은 증가율이 예상
 - 서비스수지는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¹⁾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의 영향으로 흑자가 유지되겠지만 경상이전수지는 환율 하락에 따른 해외 여행수요 증가,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추세를 보일 전망
- 당초 전망치(145억 달러)에 비해 약 20억 달러 축소
 - 원/달러 환율의 하향 조정 및 국제유가 상승 추세를 반영
 - * 수출이 세계경제 호조로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환율 하락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축소
 - * 일본 대지진은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 증가를 동반하면서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상쇄

■ 소비자물가: 2.9%(2010년) → 4.2%(2011년)

- 2011년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2010년에 비해 큰 폭 상승한 4.2%
 - 전반적인 물가여건 악화된 상태
 - * 지난해 4분기 이후 농수산물가격 상승 및 구제역 여파로 빠른 상승세

1)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은 영세자영업 수준인데다 법률, 의료, 교육 등은 진입제한 등으로 생산성이 낮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4.6%(2007년 기준)에 불과하며 G7 평균의 42%(2007년 기준) 수준임.

- * 경기회복세에 따른 임금인상(지난해 3분기 6%대), 공무원임금 5% 인상 등
- *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유동성 증가(M2/GDP: 1.1(2005년) → 1.4(2010년))
- * 수요측면 물가압력 지표인 GDP갭률 플러스 전환
- * 중국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중국 수입품 가격 상승
- * 하반기 중 원가상승을 반영한 공공요금 인상 예상

- 당초 전망치(3.2%)에 비해 1%p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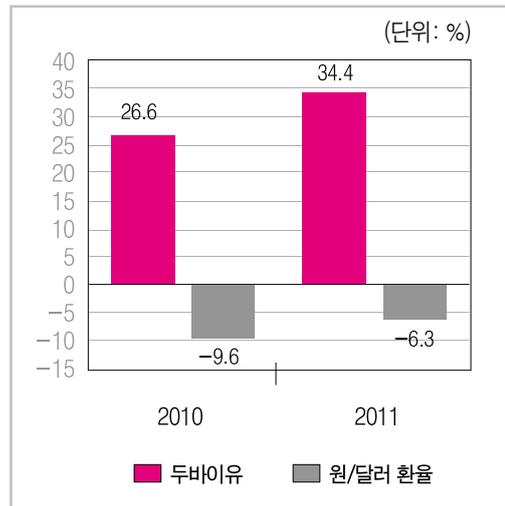
- 추가적인 물가상승요인
 - *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일본 원전중단, 중동 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 원화절상 폭은 국제원유가의 급등세를 상쇄하기는 미흡한 수준
 - * 원/달러 환율: 1,156(2010년) → 1,085(2011년), 약 6.1%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78.1달러(2010년) → 105달러(2011년), 약 35% 상승

<그림 II-8> GDP갭률



주: GDP갭률=(실제GDP-잠재GDP)/잠재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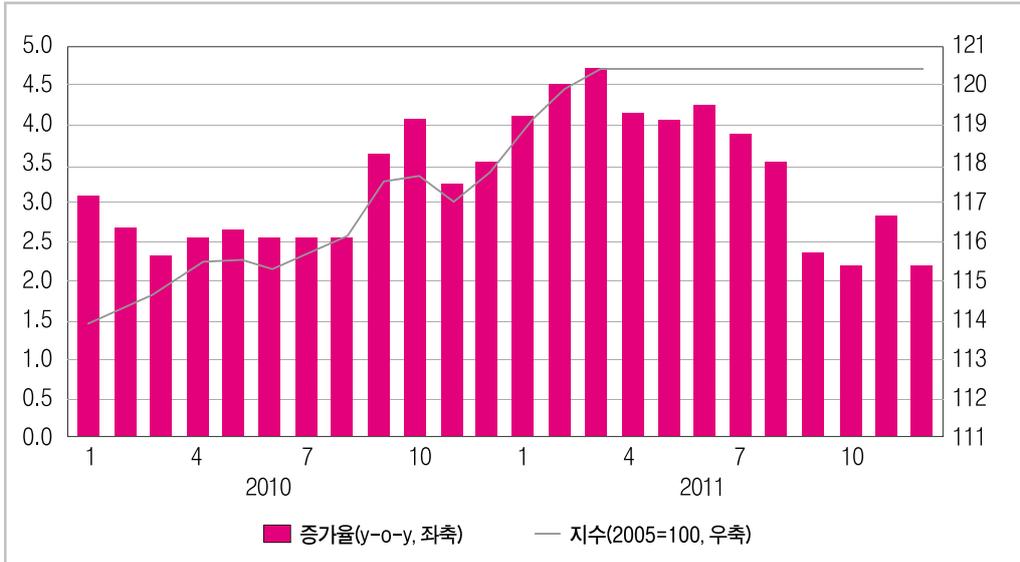
<그림 II-9> 유가 및 원화가치



주: 2011년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

- 3월 소비자물가 지수(120.4)가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 물가상승률은 3.6%로 계산되며 이는 최근의 악화된 물가 여건과 과거 추세로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함.

〈그림 II-10〉 소비자물가연 3.6% 시나리오



주: 3월 CPI지수(120.4)가 지속될 경우, 연간 상승률은 3.6%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4.7%(2010년) → 4.9%(2011년)

- 2011년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압력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시장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외국인 채권 유입 증가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 등 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로 20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유럽 재정문제, 중공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등 3대 리스크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대출수요 위축에 따른 은행권의 채권수요 증대로 시중금리의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원/달러 환율: 1,156(2010년) → 1,079(2011년)

- 달러공급 우위 지속,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수급측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개선,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등으로 달러 공급 우위가 예상
 - 정책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 및 외국인 자금유입을 통해 원화가치 상승요인이 될 것임.

- 미국정부의 약 달러 선호 등의 영향으로 약달러 현상이 예상되지만 주요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약달러 현상은 점차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 일본, 대지진으로 성장률의 추가적 하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양적완화 및 금리 동결 등을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
 - 유로, 남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으로 주요국들의 재정긴축이 본격화되면서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 또한 ECB의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지속 가능성이 낮아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표 II-9> 2011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분	2010년	2011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6.2	4.2	3.3	3.9	4.3	3.8	4.1	3.9
(SA, 전기 대비, %)		1.4	0.8	1.2	0.9	2.0	2.1	
민간소비	4.1	3.0	3.3	3.0	3.4	3.1	3.2	3.2
건설투자	-1.4	-11.9	-3.2	-1.2	1.6	-7.0	0.3	-3.1
설비투자	25.0	12.0	7.8	5.1	8.7	9.8	6.9	8.3
수출(재화+서비스)	14.5	16.8	9.9	8.2	8.0	13.1	8.1	10.5
수입(재화+서비스)	16.9	10.8	8.2	9.1	8.9	9.5	9.0	9.2
소비자물가	2.9	3.3	3.3	3.1	3.1	3.3	3.1	3.2
생산자물가	3.9	6.7	8.0	7.8	6.8	7.4	7.3	7.3
경상수지(억 달러)	282.1	18.5	32.7	37.4	39.2	51.2	76.6	127.8
상품수지(억 달러)	419.0	55.8	81.7	81.0	78.8	137.5	159.9	297.3
수출(억 달러, BOP 기준)	4,642.9	1,262.9	1,361.6	1,302.0	1,391.6	2,624.5	2,693.6	5,318.2
증가율 %	29.6	24.6	15.8	10.1	9.5	19.9	9.8	14.5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23.8	1,207.1	1,279.9	212.0	1,312.8	2,487.1	2,533.8	5,020.8
증가율 %	31.9	25.0	21.5	15.5	14.4	23.2	14.9	18.9
서비스 및 기타 수지(억 달러)	-136.9	-37.3	-49.0	-43.6	-39.6	-86.3	-83.2	-169.5
환율(원/달러, 평균)	1,156.5	1,120.4	1,080.0	1,060.0	1,055.0	1,100.2	1,057.5	1,078.9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4.6	4.8	5.1	5.3	4.7	5.2	4.9
실업률(%)	3.8	4.2	3.7	3.6	3.5	4.0	3.6	3.8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제Ⅲ장

이슈분석

민간소비 위축 요인 점검

-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

1. 경기회복 현황
2.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 현황 점검
3. 시사점

1. 경기회복 현황

■ 물가불안과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 회복세를 둔화시킬 전망

- 물가불안 및 금리인상 등 민간소비 위축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
 - 농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는 2010년 말부터 급등하는 상황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당·제분업계는 공급가를 인상했으며 철강 가격 역시 인상
 - 개인 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면적인 물가상승이 현실화되어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금리인상 또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Ⅲ-1〉 가계 국내소비지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 2010년 초부터 민간소비 증가세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 경기회복과 함께 국민계정상 가계 국내소비지출은 2009년 1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10년 1분기 이후 가계 국내소비지출 증가율 감소 현상이 뚜렷함.
 - 가계 국내소비지출 증가율(실질, 전년동기 대비): 4.5%(2010. 1/4분기)
→ 3.4%(2/4분기) → 3.4%(3/4분기) → 2.9%(4/4분기)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및 전셋값 급등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소비 회복세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하반기 금리 정상화로 인한 추가적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 추가적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가계 이자지급부담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전셋값 급등 또한 가계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므로 전셋값 안정화 방안 모색이 필요
 - 전셋값은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추가적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전셋값 급등 및 불안정성 확대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가계 소비지출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셋값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확장적 재정 기조 약화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지출 증대가 필요한 시점

- 세계경제는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가시적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음.
 - 미국경제는 소비, 생산,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3월 신규 주택판매도 전월 대비 11.1%(30만 채) 증가해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분기 9.7%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기대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 복구 지연,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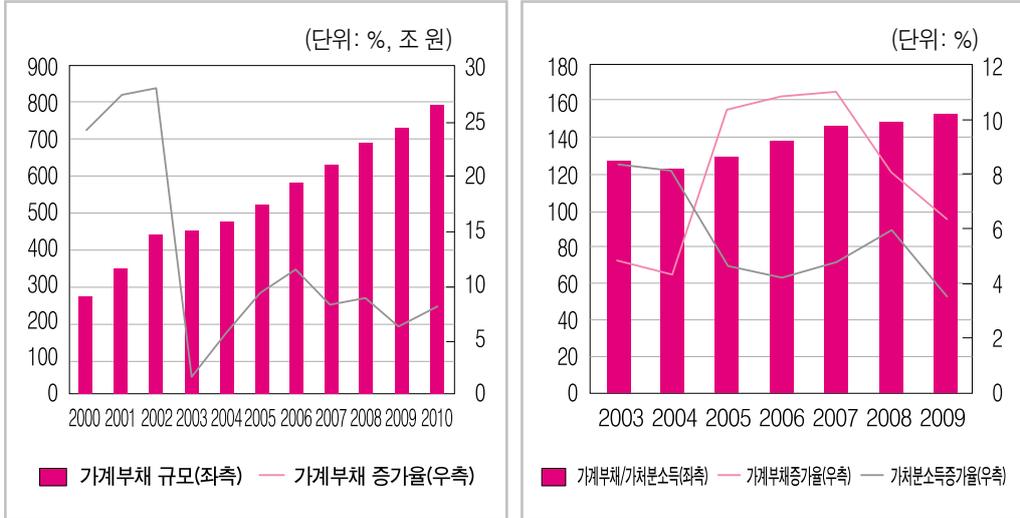
신청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할 전망

- 확장적 재정 기초 약화로 인해 정부부문의 경제성장 기여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내수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
 - 2011년 예산안에 의하면 총지출 증가율은 5.5%로 2005~2009년 평균 7.9%보다 낮은 수준
 - 이에 따라 지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확장적 재정 기초가 약화될 것이며, 정부부문의 경제성장 기여 역시 감소할 전망
 - 따라서 지속적 경제성장세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확대를 포함한 내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2.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 현황 점검

- 향후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수요 증가와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
 - 전셋값 지수는 2009년 초부터 주택구입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파른 상승 지속
 - 전국 전셋값은 2009년 3월 이후 2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셋값 종합지수는 전국은 14.8%, 수도권은 15.5% 상승, 아파트 전셋값 지수는 전국은 19.1%, 수도권은 19.2% 상승
 - 2002년 이후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2009년부터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섬.
 - 2010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9% 증가에 그쳤으나 전셋값은 무려 7.1%나 급등하였으며, 2011년에도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소형주택 중심으로 급등하던 전셋값은 최근 중형주택 전세물량 감소와 함께 중대형주택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그림 III -2> 전국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전세 수요는 증가한 반면 전세 공급이 감소하여 전셋값 상승

- 주택가격안정세, 보금자리주택 기대 등에 따른 주택매입 대기수요가 증가한데다 1인 가족 증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택멸실 등에 따른 전세 수요가 증가
 - 주택가격 하락 우려 및 보금자리주택²⁾ 등 저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로 인해 주택매매 대기수요가 증가
 - 핵가족화 심화, 1인 가정 증가 등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으나 공급은 부족³⁾하고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도 부족하여 전세 수요 증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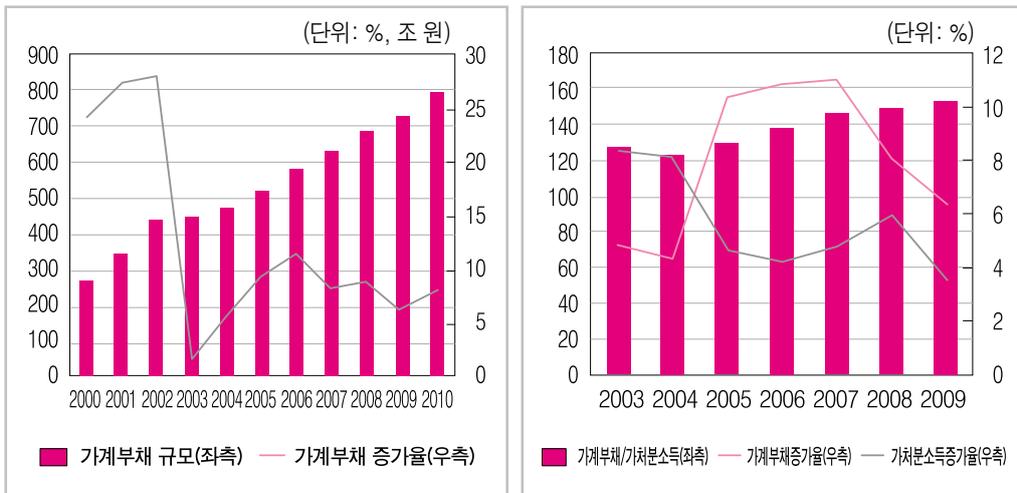
2) 정부는 2008년 9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8·27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의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건설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2012년까지 6년 앞당겨 조기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국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은 2009년 14만6천 가구, 2010년 18만 가구이다.

3) 2007년 이후 주택건설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전세 전환비율이 높은 소형주택의 비중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30%를 하회하여 전세공급 감소를 초래하였다.

제Ⅲ장 이슈분석: 민간소비 위축 요인 점검

-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월세전환 증가 및 주택건설 실적 악화, 주택매매시장의 부진 등에 따라 전세주택 공급이 감소
 - 저금리 지속으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3%를 유지하자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⁴⁾ 전세 계약 비중은 2010년 2월 59.8%에서 2011년 2월 56.8%로 하락하였음.
 - 2010년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38만6,252만 호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2007년 주택건설 실적 대비 30.5% 감소한 수준임.
-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개인처분가능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편임.
- 2010년 말 현재 가계부채는 795조 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해 7.8% 증가
 - 가계부채는 2002년 신용카드사태 이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8%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신용카드사태 직후인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는 개인부문 부채 증가속도가 개인처분가능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여 소득 대비 부채 규모 또한 증가

〈그림 Ⅲ-3〉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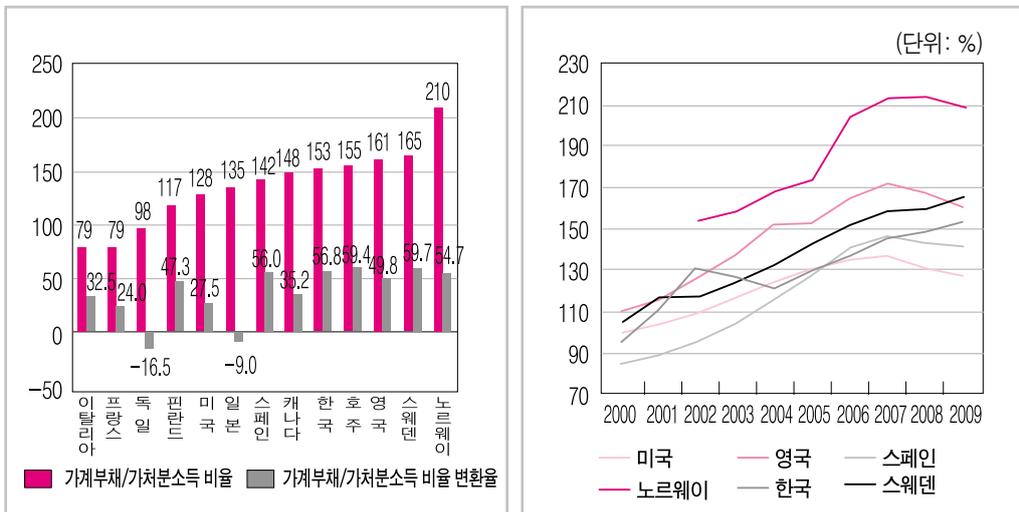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전세 계약 비중은 2010년 2월 59.8%에서 2011년 2월 56.8%로 하락하였다.

- 비교 가능한 외국에 비해서도 규모 및 증가율에서 높은 편임.
 - 2009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3%로 이탈리아(79%), 프랑스(79%), 독일(98%)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미국(128%), 일본(135%)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관련자료를 구할 수 있는 OECD 12개국 평균인 135%보다 높은 편임.
 - 2000년과 2009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율은 56.6%로 동국가들의 평균인 36.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던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데 반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I-4>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비교



주: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2009년 기준, 동 비율의 변동률은 2000~2009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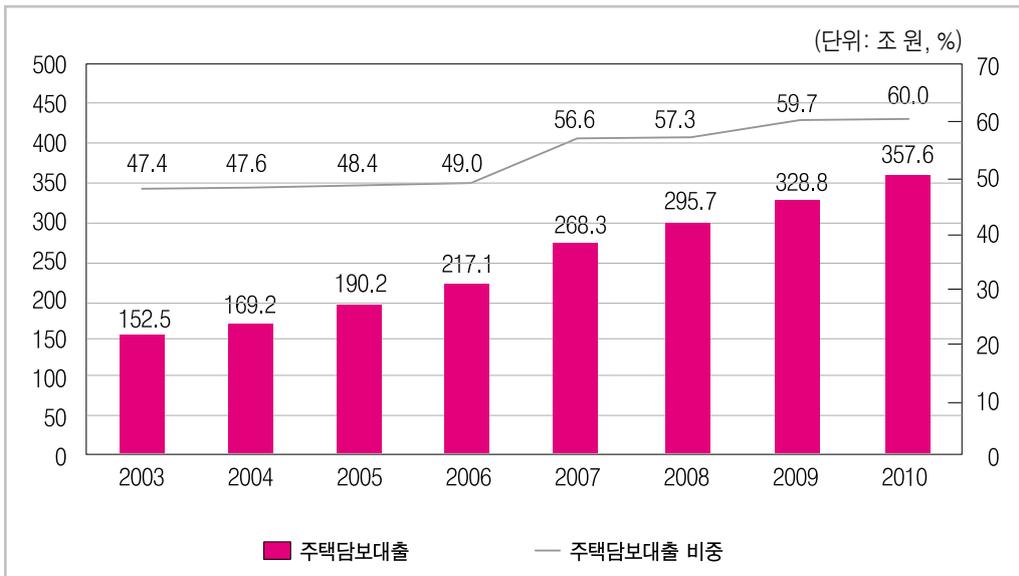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주택시장 경기와 가계부채 간의 연관성이 확대되고 있음.

- 주택담보 가계대출 규모 및 비중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제Ⅲ장 이슈분석: 민간소비 위축 요인 점검

- 주택담보 가계대출 규모는 2003년 약 153조 원에서 2010년 358조 원으로 약 2.3배 증가하였으나 2007년 전년 대비 23.6% 증가한 이후 10% 내외로 증가율이 둔화
 - 예금취급기관⁵⁾ 가계대출 잔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현재 60.0%로 2003년 47.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7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 가계부채 간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은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 가계부채 간의 연관성이 확대되었다는 간접적 증거
 - 부채보유가구일수록 보유실물자산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 또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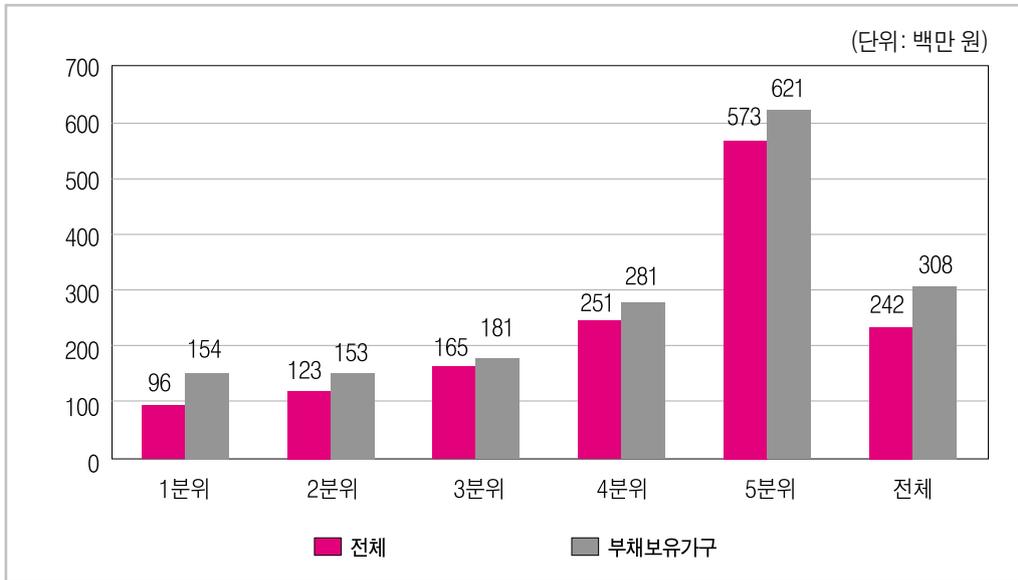
〈그림 Ⅲ-5〉 주택담보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5) 예금은행 + 비은행예금기관

〈그림 III -6〉 소득분위별 실물자산 규모



자료: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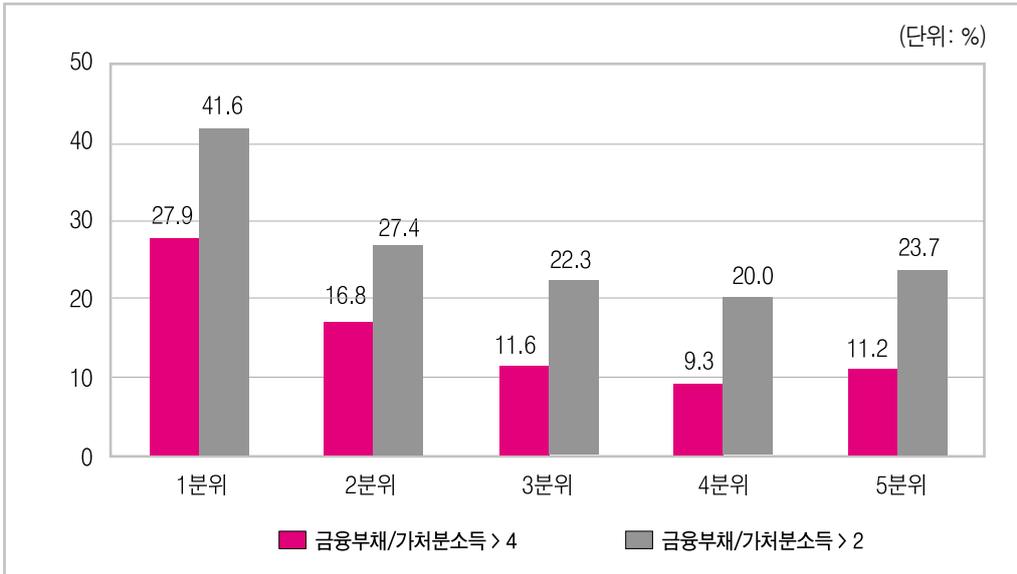
■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일수록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총자산 대비 부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등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았을 때,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

- 소득 1분위 부채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는 4배 가까이 되어 실질적인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
- 쉽게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보유 정도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소득 1분위 부채보유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분위 부채보유가구 중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배가 넘는 가구가 41.6%, 4배가 넘는 가구가 27.9%를 차지하여 고채무부담가구의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고채무부담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65세 이상의 고령 부채

보유가구의 경우 가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배가 넘는 가구의 비중이 30.2%, 4배가 넘는 가구의 비중이 19.9%인 것으로 조사

<그림 Ⅲ-7> 소득분위별 부채보유가구 중 고채무부담가구 비중



자료: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

3. 시사점

■ 주택 공급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시켜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공급확대정책이 절실함.

-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시장에는 가격통제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전세 공급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안정의 최선책이 될 것임.
- 2007년 9월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을 통해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함.

-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민간택지에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행태를 보임.
 - 최근 주택시장은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약화됨.
- 전셋값의 단기급등을 초래하여 전세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됨.
- 시행시기를 앞두고 전월세를 일시에 인상하여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음.
 - 영세상인에 대한 상가임대료 인상을 규제한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200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2002년 11월경 서울지역 주요 상권의 임대료가 평균 50% 이상 폭등하였음.⁶⁾
 - 전월세상한제는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매입 대기수요 계층의 전세 수요를 더 부추김으로써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면서 DTI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DTI는 행정규제로 장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DTI 규제에 안주하여 금융회사들이 후진적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유인이 약화됨.
 - 행정지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고 정부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감독권 남용 소지가 있음.
-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신용평가를 통한 대출을 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면서 DTI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함.

6) 박동운, 「국회의원님, 제발 전월세상한제만은 도입하지 마세요」, KERICAL럼, 한국경제연구원, 2011. 3. 17 참조

- 부동산 대출 대상과 규모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과 자체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립해야 함.
 - 정부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총량을 규제하고 개별 금융회사는 자체 리스크의 부분별 조합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방향으로 보임.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통해 가계의 부채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부채보유가구의 총자산 대비 부채규모로 본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의 부채조정과 부채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
 - 소득에 비해 부채규모가 높은 가구들은 금융자산 대비 부채규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리인상이나 소득감소로 인해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계의 부채조정과 부채상환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사시에 부동산의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됨.
 - DTI 규제의 부활은 부채보유가구의 부채상환능력 및 부채상환 가능성을 저하시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를 현실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
 - DTI 규제의 부활은 경기를 위축시켜 가계의 소득여건을 악화시켜 부채보유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킬 우려
 -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감소시켜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개선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가구특성별로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과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잠재적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비은행예금기관과 여신기관의 최근 급격한 가계대출 확대를 주목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 일부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
 - 금리 1%p 상승이 부채보유가구 가계수지에 미치는 순효과는 연평균 가처분소득의 2.3% 감소로, 이는 2011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4.1%(한국경제연구원)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금리 1%p 상승이 소득 1분위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에 미치는 순효과는 연평균 가처분소득의 5.4% 감소, 65세 이상의 부채보유가구의 경우는 연평균 가처분소득의 4.2% 감소
 - 따라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부채조정정책⁷⁾과 파산정책을 정비해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7)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민간금융기관과 정부 간의 협력 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부채조정 과정을 거쳐 왔다. 이에 대한 예로는 2007년 Hope Now Alliance나 2009년 Homeowners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 등이 있다.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7년	5.1	7.2	21,695	5.1	5.4	4.2	9.3	1.4
2008년	2.3	2.9	19,296	1.3	4.3	-1.9	-1.0	-2.8
2009년	0.2	-1.5	17,175	0.0	5.6	-1.0	-9.1	3.4
2010년	6.2	14.8	20,759	4.1	3.0	7.0	25.0	-1.4
2005년	1/4	2.7		2.5	3.7	-0.3	3.4	-3.1
	2/4	3.4		4.7	4.7	1.8	2.8	0.9
	3/4	4.5		5.7	6.3	1.5	4.1	-0.3
	4/4	5.1		5.5	2.7	3.9	10.8	0.3
2006년	1/4	6.1		5.7	6.0	3.8	7.2	1.9
	2/4	5.1		4.5	6.7	0.1	8.0	-4.2
	3/4	5.0		4.3	6.0	4.0	12.0	-0.5
	4/4	4.6		4.5	7.5	5.7	5.7	5.1
2007년	1/4	4.5		4.9	5.9	7.3	12.6	4.4
	2/4	5.3		5.2	6.3	5.7	13.0	2.0
	3/4	4.9		5.4	4.8	1.5	4.0	-0.2
	4/4	5.7		4.7	4.7	3.1	8.0	0.4
2008년	1/4	5.5		4.5	3.6	-0.6	2.8	-2.5
	2/4	4.4		2.7	4.3	0.6	2.0	-0.5
	3/4	3.3		1.8	4.6	2.1	5.3	0.4
	4/4	-3.3		-3.6	4.7	-8.7	-13.3	-7.7
2009년	1/4	-4.3		-4.7	7.8	-7.5	-21.9	1.6
	2/4	-2.2		-1.1	7.3	-3.0	-18.1	4.3
	3/4	1.0		0.4	5.3	1.0	-9.4	3.2
	4/4	6.0		5.6	2.2	6.2	12.2	4.0
2010년	1/4	8.1		6.6	3.4	12.5	29.1	4.3
	2/4	7.2		3.5	2.9	6.8	30.5	-2.3
	3/4	4.4		3.6	2.5	6.8	26.6	-3.1
	4/4	4.7		2.9	3.2	3.4	15.9	-2.9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6년	3,254.6	14.4	3,093.8	18.4	314.3	140.8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371.3	217.7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1.7	32.0	2,012.2	1,257.5
2009년	3,635.3	-13.9	3,230.8	-25.8	378.7	327.9	2,699.9	1,167.6
2010년	4,663.8	28.3	4,252.1	31.6	419.0	282.1	2,915.7	1,167.6
2008년 11월	288.4	-19.5	288.5	-15.0	-3.9	14.5	2,005.1	1,482.7
12월	271.2	-17.9	265.8	-21.6	-0.2	0.6	2,012.2	1,257.5
2009년 1월	211.3	-34.5	249.0	-31.4	-24.4	-18.0	2,017.4	1,368.5
2월	254.0	-18.5	226.0	-30.7	17.7	25.8	2,015.3	1,516.4
3월	278.9	-22.5	239.2	-35.5	34.9	37.6	2,063.4	1,377.1
4월	303.3	-19.9	248.7	-35.0	42.6	35.1	2,124.8	1,348.0
5월	278.2	-29.4	234.1	-39.5	38.2	31.5	2,267.7	1,272.9
6월	322.1	-13.6	256.9	-32.1	54.8	48.9	2,317.3	1,284.7
7월	319.1	-22.1	276.8	-35.6	50.2	40.6	2,375.1	1,240.5
8월	289.5	-20.9	274.1	-32.2	19.2	13.0	2,454.6	1,244.9
9월	339.2	-9.4	297.6	-24.7	39.7	32.6	2,542.5	1,188.7
10월	339.7	-8.5	304.0	-15.8	35.5	32.0	2,641.9	1,200.6
11월	339.9	17.9	295.3	2.4	48.5	41.7	2,708.9	1,167.4
12월	360.1	32.8	329.2	23.9	21.8	7.1	2,699.9	1,167.6
2010년 1월	307.4	45.4	315.4	26.6	10.0	-5.7	2,736.9	1,156.5
2월	330.4	30.1	310.4	37.4	5.9	-3.6	2,706.6	1,158.4
3월	373.1	33.8	355.8	48.7	32.0	12.0	2,723.3	1,130.8
4월	393.0	29.6	355.2	42.8	37.4	5.3	2,788.7	1,115.5
5월	388.9	39.8	348.5	48.9	36.6	40.0	2,702.2	1,200.2
6월	420.6	30.5	352.5	37.2	48.4	43.3	2,742.2	1,210.3
7월	405.7	26.7	350.0	28.0	52.7	44.6	2,859.6	1,187.2
8월	371.3	26.0	352.7	28.7	28.3	19.8	2,853.5	1,189.1
9월	394.1	16.2	350.0	17.6	44.5	35.0	2,897.8	1,142.0
10월	433.4	27.6	370.0	21.7	54.9	51.1	2,933.5	1,126.6
11월	412.6	21.4	386.7	30.9	33.5	19.3	2,902.3	1,157.3
12월	441.5	22.6	400.6	21.7	31.7	21.1	2,915.7	1,138.9
2010년 1월	446.2	45.2	418.0	32.6	15.6	1.6	2,959.6	1,114.3
2월	386.2	16.9	362.0	16.6	15.3	11.3	2,976.7	1,127.9
3월	480.7	28.9	452.9	27.3	28.6	14.4	2,986.2	1,107.2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구 분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6년	0.9	2.2	3.5	5.7	8.3	7.9	5.17	1,352.2
2007년	1.4	2.5	3.2	5.5	11.2	10.2	5.70	1,712.5
2008년	8.6	4.7	3.2	0.6	14.3	11.9	7.02	1,529.5
2009년	-0.2	2.8	3.6	-0.6	10.3	7.9	5.81	1,429.0
2010년	3.8	2.9	3.7	5.8	8.7	8.2	4.66	1,765.0
2008년 11월	7.8(7.4)	4.5(4.1)	3.1(3.2)		14.0	11.4	8.85	1,074.0
12월	5.6(5.6)	4.1(4.1)	3.3(3.3)		13.1	10.4	8.35	1,114.9
2009년 1월	4.7(-0.3)	3.7(0.1)	3.6(3.4)		12.0	9.2	7.34	1,156.4
2월	4.4(0.4)	4.1(0.8)	3.9(3.5)		11.4	8.8	7.07	1,139.8
3월	3.5(0.8)	3.9(1.5)	4.0(3.7)		11.1	8.4	6.14	1,140.5
4월	1.5(1.0)	3.6(1.8)	3.8(3.7)		10.6	7.7	5.68	1,322.1
5월	-1.3(0.2)	2.7(1.8)	3.8(3.8)		9.9	7.3	5.16	1,400.5
6월	-3.1(-0.1)	2.0(1.7)	3.9(3.9)		9.6	7.0	5.21	1,395.2
7월	-3.8(1.1)	1.6(2.1)	3.7(3.7)		9.7	7.7	5.46	1,460.0
8월	-3.0(1.6)	2.2(2.4)	3.7(3.7)		10.0	8.0	5.74	1,577.9
9월	-2.6(1.7)	2.2(2.5)	3.4(3.6)		10.0	7.7	5.58	1,659.5
10월	-3.1(0.9)	2.0(2.3)	3.2(3.5)		10.5	7.8	5.60	1,630.6
11월	-0.4(1.3)	2.4(2.4)	3.3(3.6)		9.7	7.6	5.43	1,583.5
12월	1.8(1.8)	2.8(2.8)	3.5(3.6)		9.3	8.1	5.35	1,646.6
2010년 1월	2.8(0.7)	3.1(0.4)	5.0(4.8)		9.3	8.1	5.40	1,682.2
2월	2.4(1.0)	2.7(0.7)	4.9(4.4)		9.4	8.6	5.32	1,599.0
3월	2.6(1.6)	2.3(1.1)	4.1(3.8)		9.3	8.8	5.02	1,665.5
4월	3.2(2.4)	2.6(1.6)	3.8(3.7)		9.4	9.0	4.69	1,730.3
5월	4.6(2.9)	2.7(1.7)	3.2(3.2)		9.3	8.9	4.48	1,648.3
6월	4.6(2.6)	2.6(1.5)	3.5(3.5)		9.7	9.3	4.65	1,691.9
7월	3.4(2.7)	2.6(1.8)	3.7(3.7)		9.3	8.8	4.81	1,731.1
8월	3.1(2.9)	2.6(2.2)	3.3(3.4)		8.5	8.0	4.68	1,762.2
9월	4.0(3.9)	3.6(3.3)	3.4(3.7)		8.1	7.7	4.41	1,815.8
10월	5.0(4.0)	4.1(3.5)	3.3(3.6)		7.6	7.2	4.13	1,889.7
11월	4.9(4.3)	3.3(2.9)	3.0(3.2)		7.4	7.3	4.19	1,924.7
12월	5.3(5.3)	3.5(3.5)	3.5(3.6)		7.2	6.9	4.17	2,002.5
2011년 1월	6.2(1.6)	4.1(0.9)	3.8(3.6)		6.5	6.6	4.52	2,091.6
2월	6.6(2.3)	4.5(1.7)	4.5(4.0)		5.0	5.2	4.72	2,002.9
3월	7.3(3.6)	4.7(2.2)	4.3(4.0)		-	-	4.54	2,002.7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 산업	평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전년동기 대비(%)	
								공공	민간
2006년	8.4	80.0	4.0	17.4	9.2	9.0	2.6	0.6	4.0
2007년	6.9	80.1	5.2	20.6	8.2	23.6	6.6	8.4	4.6
2008년	3.4	77.6	1.1	-14.1	-2.3	-7.6	4.9	6.5	2.2
2009년	-0.1	74.4	2.7	-10.3	-9.4	5.0	3.2	21.2	-5.8
2010년	16.2	81.2	6.6	11.2	25.1	-18.7	2.7	8.5	-18.7
2008년 11월	-13.6	69.1	-4.6	-53.2	-9.4	-39.5	-1.0	5.7	-6.5
12월	-18.4	62.8	-4.8	-43.9	-13.2	31.5	-8.5	3.4	-16.0
2009년 1월	-25.7	62.8	-2.9	-49.1	-21.8	0.3	-0.5	25.2	-11.4
2월	-10.2	67.3	-5.7	-27.7	-17.8	-18.5	11.0	34.2	0.9
3월	-10.6	70.0	-4.9	-25.4	-19.7	-14.0	3.1	16.6	-5.0
4월	-8.2	72.5	-4.2	-27.5	-21.2	-8.2	5.4	33.7	-5.2
5월	-9.1	73.7	1.7	-23.9	-16.2	-14.7	-1.7	16.6	-11.4
6월	-1.1	76.6	7.6	0.6	-7.7	25.1	14.5	44.4	-1.4
7월	0.7	78.7	1.1	6.9	-14.8	-2.7	-2.8	16.6	-11.6
8월	1.0	76.4	0.5	-18.6	-15.2	-25.8	-8.3	14.1	-18.9
9월	11.1	79.9	6.8	31.4	6.2	56.6	6.7	31.9	-5.5
10월	0.2	79.3	9.9	-6.2	-6.1	30.7	-6.1	3.5	-10.3
11월	18.1	77.8	9.8	57.5	14.6	80.9	3.5	8.8	1.8
12월	34.2	78.0	12.8	30.6	21.5	-16.6	12.8	18.3	9.7
2010년 1월	37.0	79.3	6.7	11.8	26.3	20.2	7.2	5.1	9.6
2월	18.3	80.5	12.8	-2.0	23.7	-4.6	0.8	12.9	-3.5
3월	22.4	81.5	9.7	20.6	38.3	-16.5	10.5	22.2	5.3
4월	19.5	81.7	7.3	27.2	32.5	-14.1	-1.0	-0.1	1.0
5월	20.6	82.1	3.6	56.3	28.4	17.4	7.3	9.6	7.8
6월	16.5	83.1	3.8	2.6	27.7	-16.9	0.2	6.7	0.3
7월	14.8	82.7	8.9	-16.5	31.5	25.6	6.7	14.0	3.9
8월	15.9	79.7	9.4	26.6	41.2	-12.5	6.5	1.4	11.2
9월	2.9	81.2	4.5	2.3	17.1	-18.1	-11.8	-14.6	-9.8
10월	13.4	79.7	4.1	9.9	21.6	-58.8	0.9	10.5	-4.8
11월	11.2	80.5	6.9	-9.2	13.1	-48.7	-0.5	17.1	-9.4
12월	10.7	82.2	4.3	34.9	7.4	-22.5	8.2	18.6	-0.5
2010년 1월	13.4	84.7	10.6	19.7	21.2	-33.9	-5.2	7.0	-12.5
2월	9.1	82.5	-0.8	26.7	1.6	-16.7	-13.2	-9.4	-16.5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 / 2011년 4월 25일

1판1쇄 발행 / 2011년 4월 28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김영용

편집인 / 변양규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